

“ESG는 필수요소”…작년 사회적 가치 1조 창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첨단소재·바이오·그린·디지털 등
ESG기반 핵심 영역 포트폴리오 재편
사회적 기업·가치창출 모델에 투자
RE100 가입…기후변화대응 노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SK 경영의 필수 요소이자 답체인지(Deep Change, 근본적 변화)의 필수 요소”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경영체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SK㈜가 20일 발간한 ‘2021지속가능경영보고서(미래를 향한 SK의 새로운 여정)’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SK도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이 정신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의 2021 지속경영가능보고서는 ESG 활동성과 중심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ESG 기반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진화 모습과 경영체계 혁신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SG 중심 경영 체계 3대 방향성 제시

SK㈜는 이번 보고서에서 투자·사업 부문별 ESG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목표를 공개했다. 투자 부문은 전문 가치투자자로서 첨단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등 ESG 기반 핵심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사업부문



SK(주) 2020년 사회적가치(SV) 측정결과			
구분	금액(원)	주요 내용	
경제간접 기여성과	9421억	고용, 배당, 납세 등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비즈니스 사회성과	844억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사회성과	126억	CSR프로그램, 기부, 봉사 등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이 정신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에서는 다년간 축적한 산업 지식과 인공 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영역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종합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 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ESG 중심 경영 체계 3대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이사회와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 활동 판단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올해 초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인사·전략·감사 등 회사 경영의 핵심 요소 전반을 이사회와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ESG 경영 실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사회적 가치 관리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해 측정하고 있다.

ESG 핵심지표 관리도 강화한다. ESG 분야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는 MSC I(모건스탠리 카피털 인터내셔널), DJS 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을 적용한 ESG 핵심지표별 정책, 실행성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해 동종 산업 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치 창출형 사업 모델 발굴 지속 추진

회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투자 및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업 모델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SK㈜는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 대상의 임팩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기업,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450억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장애인 대상 IT 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씨앗(SIAT) 등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캠페인)에 가입한 SK㈜는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목표도 추가로 공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SK㈜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제간접 기여성과(9421억 원) ▲비즈니스 사회성과(844억 원) ▲사회공헌 사회성과(126억 원) 등 3가지 영역에서 1조38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 전년(9093억 원)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다.

SK㈜ 관계자는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ESG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함께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며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단단히 구축하고 변화의 방향성과 의지를 이해관계자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이노 ‘탄소 넷제로 특별 보고서’…“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투명하게 공개
탄소 감축 위해 1조5000억 투자

SK이노베이션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ESG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개된 이번 보고서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 방안 및 투자 계획, 단계별 달성 시기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Scope 1)과 공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만드는 과정(Scope 2)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물론, 밸류 체인 전반(Scope 3)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업이 넷제로 추진 계획을 특별 보고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최초다.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Scope 1, 2까지만 온실가스 배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감축 방식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을 기준으로 Scope 1, 2에서 발생하는 탄소 1243만

톤을 2025년 25%, 2030년 50% 수준으로 감축 시킨 뒤, 2050년 이전 100%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행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ESG 경영 실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관 ESG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과 ESG위원회가 함께 만든 넷제로 특별 보고서는 명확한 목표와 달성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탄소 감축 성과를 CEO 평가



사진제공 | SK이노베이션

및 보상에 연계한 만큼 이사회 중심으로 이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1일(수) 음력: 6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심사숙고해서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겉술히 나아가면 산이 겹쳐지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대난이 연줄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화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얹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15



지분투자 및 사업협력 협약식에서 함께 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왼쪽)과 존 홀킨스 뉴스케일파워 회장. 사진제공 | 두산중공업

두산중, 미 뉴스케일에 6000만 달러 추가 투자
SMR 활용 수소·담수 생산으로 협력 분야 확대

두산중공업이 소형모듈원전(SMR)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며, SMR 기자재 제작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두산중공업은 20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과 존 홀킨스 뉴스케일파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지분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4400만 달러(약 506억6600만 원)의 지분 투자를 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투자사들과 추가로 6000만 달러(약 690억 9000만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기존 공급 물량과 이번 투자로 확보하게 된 물량 등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 조원 규모로 확대하게 됐다. 또한 SMR을 활용한 수소 및 담수 생산 분야까지 양사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파워가 협력하는 첫 프로젝트는 미국 발전사업자 UAMPS가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해 10월 14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 회장은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파워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뉴스케일파워로부터 확보한 공급 물량은 국내 협력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마인크래프트 ESG공모전’ 개최

LS전선(대표 명노현)은 20일 ‘LS전선 마인크래프트 ESG 공모전-세상을 바꾸는 ESG’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디지털 레고’로 불리는 게임으로, 사용자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블록을 연결해 상상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LS전선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블록과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등의 케이블 블록을 특별 제작해 마인크래프트 공모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참가자는 게임의 기존 블록들과 풍력, 태양광, 케이블 블록 등을 이용해 ESG가 바뀔 세상을 세상에 구현한 작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LS전선은 대상 1팀에 500만 원, 우수상 2팀과 장려상 3팀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1일(수)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26		26		24		
	36		34		36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24		24		23		
	33		36		35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24		23		25		
	35		33		31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4		26		최저		
	33		31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2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